

생활과 윤리 중요 선지- 사회와 윤리 PART

직업과 청렴의 윤리

1	순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(禮)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.	O X
2	칼뱅은 모든 직업이 신의 부르심이므로 귀천이 없다고 본다.	O X
3	칼뱅에 따르면, 소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.	O X
4	맹자는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통치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.	O X
5	마르크스는 분업을 통해 노동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.	O X
6	마르크스는 기계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7	공자와 순자는 모두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고 본다.	O X
8	공자는 순자와 달리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.	O X
9	플라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층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.	O X
10	맹자에 따르면,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.	O X
11	맹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야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본다.	O X
12	칼뱅에 따르면, 육체노동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이다.	O X
13	칼뱅은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.	O X
14	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부의 축적은 정비례하다고 본다.	O X
15	마르크스에 따르면, 노동 소외 현상은 자본가의 자선 행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.	O X
16	프리드먼은 경영자들이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본다.	O X

17	프리드먼은 애로우와 달리 기업의 본질이 이윤 추구에 있다고 본다.	O X
18	애로우에 따르면,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장기적인 이익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.	O X
19	프리드먼은 애로우와 달리 기업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본다.	O X

사회 정의와 윤리

1	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다고 본다.	O X
2	롤스는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는 부정의하므로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한다고 본다.	O X
3	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.	O X
4	롤스는 우연성을 발휘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는 부정의하다고 본다.	O X
5	노직은 국가가 시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.	O X
6	노직은 개인들 간의 선천적 능력 차이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한다고 본다.	O X
7	롤스는 사회·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.	O X
8	롤스는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제 1덕목은 정의라고 본다.	O X
9	롤스는 분배의 공정한 절차가 제대로 실행된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	O X
10	왈처는 다양한 영역의 가치 분배에 단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.	O X
11	롤스는 사회적 약자의 협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.	O X

12	롤스는 사유 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.	O X
13	노직은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.	O X
14	노직은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분배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.	O X
15	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산물에 대해서 언제나 소유 권리가 보장 된다고 보았다.	O X
16	롤스에 따르면,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.	O X
17	알처에 따르면,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 당할 수 없다.	O X
18	롤스와 노직은 모두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고 본다.	O X
19	노직에 따르면, 취득, 이전,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.	O X
20	노직은 최초의 취득이 정당하였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21	롤스에 따르면,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.	O X
22	롤스는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.	O X
23	노직과 달리 롤스는,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.	O X
24	노직은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.	O X
25	롤스에 따르면,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.	O X
26	노직은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은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.	O X

27	알처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맞는 가치 분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.	O X
28	알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.	O X
29	알처는 롤스와 달리 경제적 재화가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	O X
30	알처는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.	O X
31	알처는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이 복합 평등을 촉진한다고 보았다.	O X
32	니부어는 사회적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절대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본다.	O X
33	니부어에 따르면, 도덕적 선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제거하는 충분조건이다.	O X
34	니부어는 집단 간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.	O X
35	니부어에 따르면, 집단 간의 관계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이 지닌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.	O X
36	니부어는 정의 실현을 위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허용하지 않을 강제력도 사용 가능하다고 본다.	O X
37	니부어에 따르면,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은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.	O X
38	니부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완벽히 이성적이지만 집단의 힘에 의해 이기적이 된다고 본다.	O X
39	니부어에 따르면, 집단은 개인에 비해 자기 극복 능력이 부족하다.	O X
40	니부어에 따르면, 집단의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.	O X
41	니부어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가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고 본다.	O X
42	니부어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.	O X

43	니부어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적 힘 역시 커진다고 본다.	O X
44	니부어는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고 본다.	O X
45	니부어는 정치적 힘을 사용함에 있어 비폭력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	O X
46	맹자는 강력한 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	O X
47	플라톤은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분을 다할 때 사회가 정의롭다고 본다.	O X
48	마르크스에 따르면,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정의롭다.	O X
49	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, 교정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.	O X
50	노직은 부유세 부과가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.	O X
51	칸트에 따르면, 사형수의 생득적 인격성과 시민적 인격성은 존중받아야 한다.	O X
52	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.	O X
53	벤담은 베카리아와 달리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.	O X
54	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은 오직 법에 통해서만 가능하고, 형벌권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.	O X
55	노직은 과거의 공정한 상황이 절대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고 본다.	O X
56	칸트에 따르면, 형벌의 경중은 발생한 범죄나 해악의 중요도와 동등해야 한다.	O X
57	베카리아는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본다.	O X
58	루소에 따르면,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.	O X

59	베카리아와 달리 벤담은 형벌이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강도만을 가져야한다고 본다.	O X
60	칸트에 따르면,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.	O X
61	벤담에 따르면, 형벌은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.	O X
62	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.	O X
63	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자의 인격이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
국가와 시민의 윤리

1	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도해야한다고 본다.	O X
2	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.	O X
3	롤스에 따르면,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.	O X
4	롤스에 따르면, 시민 불복종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.	O X
5	소로는 롤스와 달리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.	O X
6	소로는 롤스와 달리 시민 불복종은 정상적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할 때 행해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본다.	O X
7	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.	O X
8	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것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9	롤스에 따르면,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.	O X

10	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.	O X
11	롤스는 법이 부정의한 정도와 관련 없이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12	롤스는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가 체제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본다.	O X
13	롤스에 따르면,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.	O X
14	롤스에 따르면,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는 체제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.	O X
15	롤스에 따르면,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.	O X
16	롤스는 정의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.	O X
17	롤스는 싱어와 달리 시민 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.	O X
18	롤스와 소로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라고 본다.	O X
19	롤스는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들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.	O X
20	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.	O X
21	싱어에 따르면,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현저한 부정의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.	O X
22	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.	O X
23	로크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한 것이라고 본다.	O X
24	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.	O X
25	로크는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.	O X

26	로크에 따르면,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.	O X
27	홉스에 따르면, 국가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 막강한 권력을 지녀야 한다.	O X
28	홉스는 인간이 이성을 지닌 선한 존재라고 본다.	O X
29	플라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적 직분을 나누어 일을 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.	O X
30	플라톤은 통치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면 피치자들을 착취할 수 있으므로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.	O X
31	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본다.	O X
32	로크는 국가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.	O X
33	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장 고상하고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본다.	O X
34	밀은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.	O X
35	맹자는 통치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역성혁명을 통해 교체될 수 있다고 본다.	O X
36	공자는 백성을 다스릴 때는 형벌로 하지 않고 덕과 예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.	O X
37	로크는 통치자의 권력이 피치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.	O X

직업과 청렴의 윤리

○	○	X	X	X	X	X	○	X	X
○	X	X	X	X	○	X	○	X	

사회 정의와 윤리

○	X	X	X	X	X	○	○	○	X
○	○	X	X	X	X	○	X	○	○
○	○	X	○	X	○	○	X	X	X
X	X	X	X	○	X	X	X	○	○
○	X	X	○	X	X	○	X	X	○
X	○	X	○	○	○	○	○	X	X
○	○	X							

국가와 시민의 윤리

○	X	X	○	X	○	○	X	X	○
X	X	X	X	X	X	X	○	○	○
○	○	○	○	○	○	○	X	○	○
○	X	X	X	○	○	X			